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08.16.(제3767)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나 없이 주님만이

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자랑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주 '나'라는 생각을 없애 주소서.

그리고 나의 속에는 오직 주님만이 살아 계시옵소서.

주가 움직이심으로

내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 이용도 (부흥사) -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오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12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입 레 송... 64장(1,3절) ...다 같 이 ※영 광 송..... 5장다 같 이

※예배의부름.....집 레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1,3)

※경 배 찬 송..... 29장다 같 이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바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곁에 있는 이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품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께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으
로 이웃을 품고 돌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 독 문... 30번(시편 67편) ...다 같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 도.....조상현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헌 금.....다 같 이

※봉 헌 송... 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목회·봉헌기도.....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집 레 자

구 약 | 사 무 엘 상 1:27-28

신 약 | 마 태 복 음 19:13-15

찬 양.... 하늘의 주찬 양 대

증 언.....권오진 목사

『 밀쳐내는 세상

맞이하는 사랑 』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복 의 선 언.....담임목사

※후 주.....반 주 자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월례회

다음 주: 목장별 목장모임

젊은이예배

오후 2:00, 중예배당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31	영 아 부	7
주 일 2 부 예 배	298	유 치 부	12
주일실시간방송예배	39	유 초 등 부	14
목 장 모 임	217	중 · 고 등 부	34
수 요 성 서 연 구	50	청 년 부	20
수요실시간방송예배	13	예 수 소 망 반	29
금 요 성 령 집 회	60	생 명 의 삶	방학
금요일실시간방송예배	22	주 일 성 서 연 구	방학
합 계	730	합 계	116

현 금			
주 일 현 금	1,772,000	감 사 현 금	3,210,000
교회학교현금	217,450	선 교 현 금	20,000
월 정 현 금	1,190,000	창립70주년현금	100,000
십 일 조	2,850,000	성 탄 현 금	50,000
합 계 9,409,450원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 화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수 - 목	레위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디도서 강해 오석만 목사

수요성서연구

8월 19일(수)10:30, 송호준 전도사

어? 성경이 읽히지네!
신약 4과 (계속)

본문: 요한복음 6장 1-13절외

- 금 주 기 도 : 김규례 권사
- 다음주기도 : 장균복 권사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방 학	박지연 전도사
	중예배당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 추 기 도 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초등부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8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김선옥 구용연	김진태 이미옥 이재화 홍석은 오정규 조은지
안내위원	이해순	
강단헌화	김준수 이정렬	
수납위원	김동수 심영관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조규성 김명훈 이성호	

지난 주일 증언

“만선보다 귀한 만남”

구 약 시 편 16:1-2

신 약 누 가 복 음 5:1-11

설 교 : 권 오 진 목사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외면받던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 하루벌어 하루를 살아가던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에게 삶의 가장 큰 꿈이 있다면, 오늘 밤 호수에서 배 가득 고기를 잡는 '만선'이었습니다. 그 고기를 팔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을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그가 가진 유일하고도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시몬은 그 꿈을 안고 밤에 호수로 나갔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아 온 어부였기에 어디로 가면 고기가 모이는지, 어느 깊이에서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만선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이상했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시간이 흘러가고 수없이 그물을 던져보지만, 그물에 걸려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취미로 낚시를 하다가도 고기가 안 잡히면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가족의 생계가 달린 시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초조함과 불안함이 밀려왔고, 만선의 꿈은 조금씩 절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결국 날이 새어 육지로 돌아왔을 때, 시몬의 손에 들린 것은 젖은 그물과 텅 빈 배뿐이었습니다. 어부에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

은 단순히 아쉬움이 아니라 '철저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무기력함과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오늘 시몬이 느꼈을 이 절망이 삶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성공한 자만 기억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인생의 밑바닥, '철저한 실패의 현장'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심을 오늘 시몬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생 예수님" - 지식적, 종교적 신앙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실패의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가'입니다. 오늘 시몬은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의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낮 시간에 깊은 곳으로 고기가 들어갈 리 없었고, 밤새 잡히지 않던 고기가 낮에 잡힐 리도 없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란 젊은 예수님의 요구는 어부 시몬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합니까?”라며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

여기서 시몬이 부른 '선생님'은 원어로 '에피스타테스'입니다. 이는 '나보다 지혜로운 지도자나 존경할 만한 랍비'를 뜻합니다. 내 삶의 문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지혜로운 조언자였습니다. 그러나 내 경험과 주관이 여전히 중심에 있는 '지식적이고 종교적 단계'의 신앙이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실패와 한계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히고 두 배가 채워져 잠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예수님을 선생의 수준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출발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 인격적, 영적 신앙

6-8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시몬이 그토록 원하던 만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니 대박이 났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어이 예수 선생님, 나와 동업합시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몬은 만선의 기쁨에 기뻐 뛰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동업하자고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시몬은 쏟아지는 물고기를 보며 만선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 단순한 선생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자의 거룩함 앞에 서면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시몬의 호칭이 바뀝니다. 이전의 '선생님(에피스타테스)'에서 이제는 '주여(퀴리오스)'로 바뀌었습니다. 퀴리오스는 우주의 창조주이자 만물의 절대적 주권자에게만 드리는 고백입니다. 시몬은 단순히 대박을 터뜨려 준 조언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서자 비로소 자신의 죄인 됨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몬의 지식적, 종교적 신앙이 이제 '인격적, 영적 신앙'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어내기를 바라는 신앙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몬의 이야기에는 두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밤새 고기 한마리 잡지 못한 시몬이 예수님의 말 한 마디에 만선을 이룬 것도 기적이지만, 고기잡이 전문가 시몬이 밤새 한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기적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밤새워 고기를 쫓아내신 예수님'. 베드로가 왼쪽에 그물을 내리면 오른쪽으로 고기를 모시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면 왼쪽으로 고기를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시몬에게 하나님되시는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몬에게 꿈은 만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기쁨의 원천

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선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선도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난 것이야말로, 만선보다 더 귀한 복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읽은 시편 16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세상의 물질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상태, 즉 주님과 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시몬은 배를 채운 물고기(만선)라는 선물보다, 내 배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남)라는 주님 자신이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토브)임을 인격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부르시는 예수님” - 꿈 너머 꿈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자신의 죄인 됨을 고백한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제 그가 이전에는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10-11절입니다. “세배대의 아들로써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루 벌어 하루 살기 급급했던 어부, 몇 마리 고기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그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을 180도 바꾸어 주십니다.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할 때 ‘취하다’의 원어는 ‘조그레오’입니다. 이는 죽이기 위해 잡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아 생명을 살려내다(catch alive)’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시몬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물고기의 생명을 빼앗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세상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어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명을 받은 제자의 신앙’입니다.

시몬은 평생의 숙원이었던 만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꿈 너머의 또 다른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시몬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꿈을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꿈을 붙잡았을 때 시몬은 배와 그물을 육지에 대어 두고, 만선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만선을 넘어 사명의 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 배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와 낙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사랑하는 딸아, 내가 밤새워 수고하였지만 낙심한 일은 무엇이나. 내 말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보지 않겠니”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만선의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선보다 귀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만선의 꿈 너머 바라보시는 주님의 가슴 벅찬 꿈을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림으로, 만선의 꿈을 이루시고, 만선보다 더 귀한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마침내 만선의 꿈 너머의 주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 금

십 일 조 헌 금 고원옥 (김수녕 최정애) 성시은 여혜경 이연순 (전상주 최옥자) 최정애 최소연 허지영 홍정자 황공자
월 정 헌 금 (심대섭 류은숙) 강정희A (김진우 한은숙 김카시아) (김진테 이마옥) 류준혁 박천숙 신상임 이정임 이혜순 (장성욱 김아영)
(홍준일 김현주)

감 사 헌 금

(권오진 조고은) : 한주간 베푸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김준수 최희성) : 제51회 여성교회특별성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하여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박범택 윤옥희) :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살게 하소서.
홍영기 :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정희 :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손들 믿음으로 주일성수와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길경은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동수 전순남) : 더운 날씨에도 선하게 도와주셔서 휴가를 잘 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동행하심에 더욱 더욱 감사드립니다.
김혜영 :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상근 차용분) :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박권사 건강 회복하게 치료해주시니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한 저희 가정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대로 이루소서.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양명숙 :故이현호 권사 23주기 추도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경애 : 여성교회 특별성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희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정임 :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심을 역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태영B : 여성교회 특별성회로 인해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삼순 : 여성교회 특별성회 함께 하시고 은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정애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총여성교회 : 제51회 특별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함께 하고 섬긴 모든 손길과 아현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 명 :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철 신앙활동을 은혜롭게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성장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 드립니다.)

선 교 헌 금 이한나

성 탄 감 사 헌 금 김현옥

특 별 헌 금 창립70주년 신상임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청년부 수련회(국내선교) : 21일(금)~23일(주일),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는 세대II’라는 주제로 제주 세움교회에서 있습니다.
- 창립70주년 나눔콘서트 및 초존 캠페인 : 30일(주일) 오후 1시 30분, 대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전교인수양회 참가신청 : 9월 5일(토) ~ 6일(주일) 가평우리 마을에서 “위드(WITH)2026”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 제자양육반 <생명의 삶> 제3기 수강 신청 안내 :
주중반(수요일, 9월 9일 개강) 저녁 7-9:30
주말반(토요일, 9월 12일 개강) 오전 10-12:30
9월 9일(수)까지 교회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2만원, 총 13주 과정)

■ 모임안내

- 제7남선교회 월례회 :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 소예배당(지하1층)에서 있습니다.
- 여선교회 월례회 :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각 지회별로 있습니다.
제1여선교회-402호(4층) / 제2여선교회-403호(4층)
제3여선교회-회의실1(로비층) / 제4여선교회-302호(3층)
제5여선교회-새가족실(3층) / 제6여선교회-301호(3층)
제7여선교회-회의실3(로비층) / 제8여선교회-도서실(로비층)
제9여선교회-401호(4층)
- 제6남선교회 월례회 : 오늘 오후 1시, 회의실2에서 있습니다.
- 제5남선교회 월례회 : 오늘 오후 12시 40분, 회의실3에서 있습니다.
- 지역니눔 반찬봉사 : 22일(토) 오전 9시에 만나홀에서 있으며, 배달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 교우동정

- 감사 : 제7남선교회 야외예배를 후원해 주신 이수용 황한규 장로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푸른초장 목장을 후원해 주신 김명중 류기운 권사께 감사드립니다.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로목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담임목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련목회자 송호준
- 전도사 박지연
- 교육전도사 서지수

- 감사 : 제5남선교회를 후원해 주신 노정훈 이재화 권사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청년부 여름수련회(국내선교)를 후원해주신 총여선교회, 김준수 최희성 서태희 유경희 장로, 권은정 조성규 권사께 감사드립니다.
- 교직원 휴가 : 장만섭 권사(8/21 ~ 8/27)

♣ 여름철 신앙교육활동

청년부 8.21(금) - 8.23(주일) (국내선교)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6-03. 조현진 성도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8월 중 행사

- 목장모임 : 23일(주일)
- 정기 기획위원회 : 29일(토)

■ 금요성령집회(8월 21일)

찬양	느헤미야 찬양단
설교본문	창세기 32:21-30
설교제목	홀로 남은 밤에 찾아오시는 주님
설교	권오진 목사

■ 주일아침예배(8월 23일)

대표기도 김수미 장로

■ 주방봉사

- 이번 주 : 2초원
- 다음 주 : 1초원

- 소속목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가지휘 김정희 김병일
- 반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